

알리는 말씀

1. 故 배민수 목사 53주기 추모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2. 주일예배는 교회 홈페이지(<https://samae.yonsei.ac.kr>)에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립니다. 현장예배는 예배필수인력(사회자, 설교자, 성가대, 기도자, 성경봉독자, 안내/봉헌자, 미디어 담당)만 함께합니다.
3. 오늘 설교해 주신 박정세 목사님(삼애교회 초대 담임)께 감사드립니다.
4. 예배 마친 후 박정세 목사님과 목회팀에서 故 배민수 목사님 묘전 헌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5. 추모헌화를 해주신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님,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교회 이대성 담임목사님과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
6. 수요말씀묵상(풍삼초6): 수요일(8/25) 저녁8시 줌미팅(주소 홈페이지 배너클릭).
7. 9월호 말씀묵상집(생명의 삶)과 성경읽기표가 준비되었습니다.
8. 교우 온라인심방 및 여름성경학교가 은혜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. 교우님들의 기도와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.
9. 예배위원

날 짜	8/22	8/29	9/5	9/12
기 도	김충진	임은경	남선교회장	선교분과장
성경봉독	신미주	봉사분과장	남장년회장	3구역
안내/봉헌	천진옥	친교분과장	2구역	3구역
목회팀면담	故배민수목사 53주기추모	봉사분과 친교분과	남선교회 남장년회	선교분과

지난 주일 통계

주일 예배 현금	십 일 조	6,060,000	월정헌금	600,000	주정헌금	275,000
	감사헌금	300,000	선교헌금	30,000	특별헌금 (성경학교)	100,000
	총계					7,365,000
주일온라인예배(8/15) 동시접속					27건	
수요말씀묵상(8/18) 참여자					4명	

※ 온라인 현금: 우리은행 126-000066-18-001 연세대학교
(온라인 현금 입금 시 성함 현금이름 순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. 예/홍길동월정)

❖ 성경은 새번역을 사용합니다.

❖ 주일예배의 성서본문은 세계 공동 성서정과를 따릅니다.

하나님 사랑 · 농촌 사랑 · 노동 사랑

삼애교회

제16권 34호
2021. 8. 22

숨과 심이 있는 숲속의 교회



담임목사: 정용한

부목사: 김충진 교육전도사: 박정우

지휘: 오상용 반주: 민소영


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-30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
TEL 031-975-1885 FAX 031-975-1884
love3@yonsei.ac.kr <http://samae.yonsei.ac.kr>

주 일 예 배

오순절 후 열세 번째 주일 / 故 배민수 목사 53주기 추모예배

주일 오전 11시

*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.

인도: 정용한 목사

전 주	반 주 자
예 배 사	인 도 자
*찬 송	다 같 이
*교 독 문	다 같 이
*참회의 기도	다 같 이
*사죄의 선언	인 도 자
*평화의 인사	다 같 이
신 앙 고 백	다 같 이
예 배 기 도	김충진 목사
성 경 봉 독	신미주 교우

열왕기상 8:29-30(p.474); 에베소서 6:10-13(p.302)

찬 양 농촌계몽가 / 해방의 기쁨 성 가 대
(삼애교회 이야기 中)

복 음 서 봉 독	인 도 자
말 씀 증 언	박정세 목사
목 상 기 도	다 같 이
찬 송	다 같 이
*봉 헌 송	다 같 이
봉 헌 기 도	정용한 목사
성도의 교제	정용한 목사
*찬 송	다 같 이
*축 도	박정세 목사
*후 주	반 주 자

교회학교 예배

주일 오전 10시 20분

찬 트	시편 127:1	다 같 이
찬양과 율동		다 같 이
성 경 봉 독	신명기 6:1-9	박지희 어린이
설 교	“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는 가정”	박정우 전도사
헌 금		다 같 이
주 기 도 문		다 같 이

*공지사항

1.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10시 20분에 온라인예배 (Zoom주소 -<https://zoom.us/j/9158459546>)만 진행합니다.
2. 카카오톡 채널('삼애교회 교회학교')에 매주 가정활동지를 올려 드립니다.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해 주세요.

주간 성경 읽기

삼상 14-20; 롬 12-고전 2; 렘 51-애 5; 시 30-36

다음 주일 설교

(본문) 아 2:8-13; 약 1:17-27; 막 7:1-8, 14-15, 21-23
김충진 목사